

## 경제 규제혁신 TF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9.5)

- 지금부터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오늘 회의에서는 ❶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, ❷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❸ 데이터·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.

### [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]

- 먼저, 지난 7.28일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1.6조원+α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를 포함한 50개 과제를 발표한 이후, 약 한 달 동안 마련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그간 대한상의,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, 물류·건설 등 산업별 현장으로 해소와 전기·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,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. 예를 들면,
  - ❶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·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, 이를 통해 4천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.
  - ❷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,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·판매할 수 있게 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4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.
  - ❸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·판매할 수 있게 하고,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.
  - ❹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.5톤에서 2.5톤까지 확대하여 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, 배송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⑤ 무게·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하여 공원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,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, 로봇·인공지능 산업 등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⇒ 이번에 확정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천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 [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]

□ 다음으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.

- 순환경제 산업은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,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사용 제한,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폐기물 규제 등이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정부는 산업·환경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향적 규제개선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① 먼저,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·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열분해 시설의 설치·검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, 폐기물 부담금 감면, 지원금 구조 개편 등도 추진하겠습니다.

- ②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해서도,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한편,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,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·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
⇒ 이러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됩니다. 앞서 말씀드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효과(8천억원)까지 감안하면 총 1.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 [ 데이터·신산업 분야 개선방안 ]

□ 끝으로, 데이터·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입니다.

-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, 데이터산업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.
-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 합동으로 데이터·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  -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발표(국무총리 주재)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 [ 향후계획 ]

- 오늘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.
-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.
- 그럼 지금부터 경제 규제혁신 TF의 공동팀장인 김태윤 교수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. (김태윤 교수 모두발언)
- 이어서 환경부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. (환경부장관 모두발언)
-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 
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